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2월 31일

CUOMO 주지사, 사면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형기를 완료하였지만 전과 기록 때문에 법적 지위와 권리가 저지된 뉴요커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세 건의 사면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본인은 관용을 통해 정의가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전과 기록을 가진 세 사람에게 사면을 베풉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뉴요커들은 사회에 대한 빚을 오래 전에 갚았지만 과거의 범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각자는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에 기여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지역사회에 되돌려주었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를 가질만 합니다."

Cuomo 지사는 다음 사면을 발급하였습니다:

Seymour Hunter(70세, 맨해튼)는 1994년에 Kings 카운티에서 통제 약물의 제3급 매매 시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Hunter는 노숙자로서 약물 중독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징역과 5년 보호관찰에 처해졌습니다. Hunter는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재활 프로그램과 보호관찰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지난 12년 동안 노숙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한 비영리 단체를 위해 일해 왔습니다. 그는 노인, 저소득 전문가와 HIV 및 에이즈와 싸우는 사람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어떤 건물의 관리자입니다. 자마이카 태생인 Hunter는 미국에서 44년 동안 영주권자였으며 미국 시민권을 딸려고 합니다.

Gerardo Alvarez(49세, Lake Peekskill)는 2002년에 뉴욕카운티에서 통제 약물의 제7급 범죄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는 동료와 함께 교통 정지를 당했을 때 차에서 코카인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Alvarez는 유죄 인정 후 3일간의 지역사회 봉사와 6개월 운전면허 정지에 처해졌습니다. 비록 합법적인 영주권자였지만 Alvarez는 2010년에 부인과 함께 휴가 후 미국에 재입국하려다가 여러 달 동안 구류된 후에 추방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건은 결국 2013년 7월에 추방 없이 해결되었습니다. Alvarez는 멕시코 태생으로서 1980년 이래 미국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1986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였으며, 두 자녀가 대학에 다닙니다. 그는 같은 고용주 밑에서 25년 동안 일해 왔으며, 지역사회와 교회에서 적극적이었으며, 미국 시민권을 딸려고 합니다.

Korean

Rocco Paciello(49세, Clinton)는 1988년에 3급 법정 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22세였던 Paciello를 상대로 한 기소는 여자 부모의 승락하에 데이트하던 당시 15세 걸프렌드의 부모가 제기한 진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8일 징역과 5년 보호관찰에 처해졌습니다. 보호관찰에서 조기에 풀려난 후 Paciello는 걸프렌드와 결혼하여 21년 동안 혼인을 유지해 왔습니다. 1987년에 그는 주방위군에 입대하였으며 나중에 정규 군인이 되어 2007년에 퇴직하였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와 교회에서 적극적이었으며, 현재 대학교 명예 학생입니다. 그의 사면 청원은 원래의 고소장 제출을 크게 후회하는 처부모, 그의 부인, 18세 및 25세의 두 자녀, 그의 목사, 그의 처제, 친구 및 주방위군 동료로부터의 지지 서한과 함께 왔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